**오바마시에 대해**

오바마시는 후쿠이현 서남부에 위치하며 일본 서쪽 해안가에 있습니다. 이 서쪽 해안이라는 최적의 장소는 수 세기 동안 오바마에 풍부한 해산물을 선사해 주었습니다. 또한 천연의 항구를 자랑하는 오바마는 한국과 중국, 그리고 그 외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도 주요한 항구였습니다. 특히 한국의 경주시와는 자매도시를 맺고 있어 깊은 친분이 있습니다. 현재 인구는 약 2만 8천 명, 면적은 233.1km² 의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,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와카사의 일부로서 일본 식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

‘와카사’란 한때 오바마시와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나라의 이름으로 현재도 이 지역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와카사는 나라시대(710년-784년)에 천황에게 해산물 등의 을 헌상했던 세 곳의 ‘미케쓰쿠니(御食国)’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시내에서는 제염토기 유적이 약 60곳에서 확인되었고 7세기까지 이어진 대규모 제염작업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. 헤이조쿄(약 1300년 전 현재의 나라시에 세워진 수도) 터에서 출토된 목제 짐표에서도 소금이나 스시와 같은 공물이 천황이 사는 도시로 정기적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에도시대(1603년-1867년)에는 지금도 생산되는 와카사의 가자미나 구지(일본어로 옥돔의 방언)의 아이모노(생선자반)로 유명해졌습니다.

오바마가 교토에서 받은 영향

오바마는 미케쓰쿠니였기 때문에 교토와의 사이에 길이 정비되었습니다. 이 길은 고등어를 운반했다고 해서 ‘고등어길’로 불리며 오랜 세월 오바마의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. 오바마에서 교토로 물품이 운반되고 같은 길을 거쳐 오바마에는 1500년 동안 지식과 습관이 수도로부터 전해져왔습니다. 오랜 역사를 거쳐 계승해 온 음식과 제례, 그리고 그 당시의 활기찬 모습을 간직한 거리 풍경과 풍요로운 자연이 지금도 숨 쉬고 있습니다. 300년의 역사를 지닌 오바마시 최대의 가을 축제 ‘호제 마쓰리’는 교토의 기온마쓰리에서 유래되었으며, 시시라고 불리는 가상의 동물이 등장합니다. 또, 교토에서 전해온 건축양식은 현재도 오바마의 옛 게이샤 거리에 있는 오래된 찻집에서도 볼 수 있으며, 전통건축물군 보존지구에 지정된 구역도 있습니다. 그리고 수도로 이어지는 가도변을 따라 역참이 지어졌습니다. 이 지역에서는 행상이 불교의 영향을 전파해 오바마에서 교토로 이어지는 가도변에는 많은 사원과 불상이 있습니다. 일본에 처음 온 코끼리도 15세기에 오바마항을 거쳐서 교토로 운반되었습니다.

일본 문화청은 오바마시의 바다와 옛 수도를 연결하는 지역의 문화적 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2015년에 이 지역을 일본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.